

진안군, 말산업 육성 지속 추진

유소년 승마단 운영·승마장 육성지원 등 진행... 2023년 지원사업 신청

진안군은 30일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선도하고, 말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 관내 학생들과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마 체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승마는 말과 일체가 돼야 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운동으로, 신체발달을 돕는 전신운동인 동시에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건전한 정서 함양을 꾀하는 정신운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승마를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부담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학생승마체험 사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30%를 군비로 보조하고, 학생들이 더욱 쉽게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과 승마장 육성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승마 인구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군은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마필보험 가입비용, 승용마 조련비용, 승마시설 개보수 등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을



진안군은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선도하고, 말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진행해 안전한 환경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도에 창단한 유소년 승마단이 현재까지 꾸준히 대회에 참석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소년체전에 도 대표로 2명이 선발되는 등 도내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다.

군은 꾸준히 말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 2023년도에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학생승마체험,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유소년승마단 지원, 농어촌형승마시설, 승용마 조련장화 지원 등이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진안군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유소년 승마단을 비롯해 승마사업 지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산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농상생형 농가일자리 지원 '호응'

장수군로컬JOB센터

장수군로컬JOB센터(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농(都農)상생형 농가일자리 지원사업'이 농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도시민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이 투입된 전북 도농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2022년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과 전라북도·장수군·완주군·무주군·고창군과 지원 약정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다.

농가와 농작업 희망 도시 구직자 알선 사업은 낱알, 전주 등 도시 유망인력(퇴직 근로자, 회사원, 퇴직공무원 등)을 발굴해 장수 관내 농가에 지원 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장수사과원에협동조합과 MOU체결해 사과, 배, 두릅 등 작기에 농가를 연계하는 통합 일자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현재까지 농가구인처 170곳, 구직신청 410건, 채용연계 1,643명을 알선 완료

했다.

또한 △중식·간식비 9,000원 △도시 농업근로자 고용촉진수당 3,000원 △농업근로자 상해보험 지원 △보험 신청 사업은 낱알, 전주 등 도시 유망인력(퇴직 근로자, 회사원, 퇴직공무원 등)을 발굴해 장수 관내 농가에 지원 하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농업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를 입었을 시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의 보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며, 안정화된 시스템 구축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 본격 추진

무주군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창업 비법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2022년 문화관광형 창업지

원 사업'(미취업자 대상)을 추진하면서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책을 펼친다.

이에 군은 사업비 6천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인테리어, 재료비와 홍보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문 문화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문화분야 공약 발표

무소속 기호 4번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30일 문화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인홍 후보는 지난 민선7기 동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도서관의 건립을 가시화 했으며 이제는 무주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첫 걸음으로 지역학인 무주학을 시행하고 무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무주의 정체성을 확립 하겠다며 이를 무주의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발굴, 육성하여 무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황인홍 후보는 고 정기용 건축가가 남긴 공공건축물이 무주의 소중한 보물이라며 정기용 건축가의 맥을 이어 가도록 정기용 건축상 공모제를 시행하고 많은 건축학도들과 관계자들 관객들이 무주를 찾게 하는 새로운 인문 문화 자원으로 육성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어 최북 미술대전의 개최와 현재 시행 중인 노인 김환태 문화제를 전국 단위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며 약속했다.

황인홍 후보는 "우리 무주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무주가 인문 문화의 도시로서 재조명되길 바라며 인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우리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무주의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축이 되게 하겠다"며 그 당찬 포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농민공익수당 120만원으로 확대할 것"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 농민 지원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가 농민공익수당 지원 금액 100% 확대와 생생카드 지원 확대 등 농민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이어 "연간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연간 50만 원 지원으로 확대하고, 기초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제 기금 및 품목 또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의탁 후보는 기존에 추진하던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무주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해, 이목을 끌고 있다.

황의탁 후보의 농업 분야 세부 공약은 총 19가지이며, 이는 선거공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성주-무주간 68.4Km 고속도로 조기 개통"

서정호 무주군수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만나 협의

국민의힘 서정호 무주군수 후보는 빈약한 무주군 재정으로는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집권여당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예산폭탄의 기적을 일궈 내고자 국민의힘으로 군수 당선에 도전했다"고 알린 바 있다.

서정호 후보는 이를 위해 최근 경북 안동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를 만나 "성주-무주간 68.4Km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성주-무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500만 대구시와 경북도민이 무주에 오게 되어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우량묘 분양

무주군이 2022년 고구마 우량종묘 생산·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품종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종별 실증재배를 통한 무주 특산품을 개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급 품종은 5종으로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고 조기출하가 가능한 진음미와 호감미, 당분이 풍부하고 입고 병에 강한 보드레미와 단자미 등 모두 320농가에 5만4,850본의 고구마 우량묘를 분양했다.

군은 지난 4월초까지 농가대상으로 선착순 신청 받은 후, 농가당 공급량을 확정하고 지난 25일부터 읍면별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험포에서 각 농가에게 공급했다.

군은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분양을 통한 농가 확대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우량묘 분양과 함께 재배 기술 교육도 병행한다.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을 통한 무주 재배농가들의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유기농 인삼병해충 종합관리기술개발 현장연구

진안군은 유기농 인삼 종자생산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현장 연구 추진에 한창이다.

이번 연구는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해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와 협업과제로 유기농 적합 병해 저항성 인삼품종(재래종 외 3종)을 선발하고 유기농 인삼종자 생산기술 현장 실증을 나서고 있으며 올해 첫 종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는 진안군이 인삼 4개 품종(천홍, 금홍, 연홍, 재래종)의 전신포장을 관리하고 유기자재(석회보르도액, 석회유황)와 미생물제(클로렐라, 바실러스 아밀로리퀴파시엔스(Bacillus amyloliquefaciens)등)를 주기적인 처리를 한다. 이를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서는 유기자재 처리 인삼에 대한 생육조사와 성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 연구 과정을 통해 유기농 인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개발이 순항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